



“여름아, 반가워!”
작고 여린 잎들이 자리를 양보한 곳에
여름의 시간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활짝 피우고 한 번 더 쭈욱 고개 내밀고,
힘껏 더 힘껏 담벼락을 차오르며
여름은 그렇게 내 안과 밖에서
뜨거움으로 자라고 피어납니다.



Special Theme
Glocal University 청주대학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청주를 건설하다



유물에 담긴 시간



청자상감국화문모자합(靑磁象嵌菊花紋母子盒)

청주대학교 박물관 소장

고려시대 여인들이 분이나 연지를 담아 보관했던 화장합(化粧盒)입니다. 마치 어머니와 네 명의 자식들이 모여 있는 형상으로 구성되어 '모자합(母子盒)'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2세기에 찬란히 꽃피었던 상감기법으로 아름다운 국화문을 새겨 넣어 예술적 가치 또한 뛰어납니다.



단장하는 손길 따라 국화꽃 향기 피어나고

두런두런 모여 앉아 시절을 이야기하듯
연지와 백분, 향유, 면약, 머릿기름이 소곤거렸으리라.
자토(紫土)는 즐기와 잎사귀 되고
백토(白土)는 꽃잎이 되어 국화다발로 피어나니
얼굴 매만지는 여인네들 손길마다 국화 향이 묻어났으리.
그저 찬찬히 바라만 보아도
마음마저 어여빠질 것 같습니다.



Cheongju University Magazine
2014 Summer Vol. 67

청주대학교 소식지의 제호인 <WOW 청대>는 '세계를 향한 창(Window of the World)'이라는 의미와 함께 청주대학교 캠퍼스가 위치한 우암산의 또 다른 이름인 '와우산'과 청주대학교의 발전과 성장에 감탄하는 의성어 '와우(Wow)'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WOW 청대 2014년 여름호(통권 67-2호)
발행일 2014년 7월 31일
발행인 김윤배 | 편집인 윤기택
발행처 청주대학교 대외협력실 (Tel. 043-229-8011)
363-764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기획 및 디자인 ㈜꽃피는청춘 Tel. 02-3142-7373
촬영 이원재 | 취재 이은형

Contents

02 Letter from President

총장 인사말

Special Theme

06 Special Opinion

녹색으로 호흡하는 청주! 사람, 자연,
공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다

08 Academic Union

녹색도시 청주의 미래를 만드는
청주대학교의 힘

Glocal Report

14 Global Today

옛날 전통 그대로!
전통 성년례 현장 스케치

16 Global Challenge

지상낙원 하와이에서 성장한
나의 꿈, 나의 미래

18 Local Together

길 위에서 청춘의 희망을 발견하다!
제2회 WOW 기업도보대장정

WOW People

22 청인보(淸人譜) 제1장

남양유업 대표이사
이원구 동문(법학과 76)

26 청인보(淸人譜) 제2장

국내 PR계의 권위자,
광고홍보학과 김찬석 교수

28 청인보(淸人譜) 제3장

6·25 참전용사 다큐 제작한
송영욱(광고홍보학과 3학년)

30 Photo Essay

나를 둘러싼 세계를 경청하라!
귀가 아닌 뜨거운 마음으로

WOW Messenger

32 Bravo Your Life

남다른 부부애와 동지애,
경찰부부 김은호·안정희 동문

34 Beautiful Reunion

음악으로 맺어진 아름다운 인연,
음악교육과 이래근 교수·
소프라노 한윤옥 동문

Issue & News

38 Focus On

제19기 통일교육위원 충북협의회
출범식 개최 외

42 News Brief

청주대, 세월호 성금 2,450여 만원 기탁 외

44 People News

교수소식 | 김종태 교수,
충청북도기능경기위원회 표창장 수여 외
동문소식 | 이원준 동문,
롯데백화점 신임 대표이사 취임 외

46 Special Lecture

정성희 한국여기자협회장
명사초청 특별강좌 외

48 Donation Guide

발전기금 종류 및 기부자 예우 안내

통합청주시 출범과 함께 중부권 최고의 대학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녹음이 한층 더 짙어지는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뜨겁고 치열한 이 계절처럼, 청주대학교 구성원 여러분들도 매일의 도전을 지혜롭고 강건하게 헤쳐나가 어느덧 만개할 큰 성취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특히 우리 청주대학교 학생들의 빛나는 도전과 결실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은 올해에도 IDEA,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금상과 본상을 획득한 데 이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14에서도 본상을 수상하며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모두 수상하는 그랜드 슬램을 3년 연속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청주대학교의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훌륭한 교수진,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이 쌓아올린 자부심이자 명예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학과 학생들은 'WOW 기업도보대장정'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면서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충청북도의 기업과 학생들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발로 구석구석을 걸으며 지역의 강소기업들을 알아가고, 자신의 미래를 탐구해 나가는 모습은 젊은이다운 그 자체입니다. 이렇듯 각자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루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에 청주대학교의 내일은 더 푸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주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드디어 지난 7월 1일, 통합청주시가 새로운 시대의 막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통합청주시의 인구는 5월 말 기준 84만118명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창원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매머드급 준광역시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청주시가 대전·세종과 함께 중부권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청주대학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대학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할 성장의 발판을 차근차근 다져오고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장기발전계획 '글로벌 비전 2020'을 통해 2020년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으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전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 약 3,000억 원에 가까운 재원을 투입하여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족시키는 최고의 교육환경을 조성해왔습니다. 여기에 9만여 동문이 마음을 다해 모아주시는 물심양면의 관심과 도움은 우리 청주대학교 성장에 가장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통합청주시 출범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우리 청주대학교의 도약을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성취와 정진을 거듭하며 매일 새로워지는 푸른 나날이 되시기를 마음 깊이 바라겠습니다.

청주대학교
총장 김 윤 배

◆ 총장동정

김윤배 총장, 사랑의 점심 나누기 봉사활동
지난 4월 26일 낮 12시, 김윤배 총장은 청주 중앙공원에서 우리대학 학생과 교직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원을 찾은 지역 노인들에게 무료로 잔치국수를 대접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학생 및 교직원들은 공원 한쪽에 간이주방을 마련해 700인분에 달하는 국수를 준비했고, 김윤배 총장이 학생들과 함께 공원 곳곳을 다니며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한편, 우리대학은 건학이념을 계승하고 실천한다는 취지에서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로 14년째를 맞고 있다.





Green & Eco City

녹색도시의 미래를 제시하다

Glocal University 청주대학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청주를 건설하다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과 함께 '녹색도시' 청주를 향한 청주대학교의 꿈과 노력은 더 강하고 견고해졌습니다. 옛 것의 가치를 살려 새로운 쓰임을 고민하는 도심재생사업과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새로운 녹색공간을 만드는 자연친화적 가치의 실현으로 청주시의 새로운 미래를 쓰고 있습니다.



SPECIAL THEME

06 · Special Opinion

녹색으로 호흡하는 청주
사람, 자연, 공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다

08 · Academic Union

녹색도시 청주의 미래를 만드는
청주대학교의 힘



녹색으로 호흡하는 청주 사람, 자연, 공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다

7월 1일 통합청주시가 출범했다. 이에 '녹색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청주시의 새로운 모색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도시가 사람중심으로, 안전하고 살맛 나는 터전으로 변화한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 또한 그 모양새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청주시는 공간과 환경, 기후변화와 환경관리 등을 두루 아우르는 스마트한 녹색정책을 펼쳐가면서 누구나 살고 싶은 청주의 미래를 완성해가고 있다.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무심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녹색도시 만들기

지금 청주시에는 어떻게 하면 개발의 논리에서 사람이 제외되지 않고, 또 옛 것과 현재의 것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도심 속에 자연을 들여놓고, 오랜 세월 방치됐던 건물들이 시민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도시개발에만 몰입하기보다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며, 격조 높은 문화를 누리는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를 가꾸어 가겠다는 시정 목표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0년에 청주시는 우리대학 도시계획학과 조철주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녹색수도 정책기획단을 구성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개발해왔다.

또, 2012년에는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살고싶은청주만들기협의체, 녹색수도정책 기획단이 통합된 녹색청주협의회를 창립, 민·관·산·학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주 지역의 크고 작은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 녹색청주 네트워크는 시민들이 삶터와 일터, 배움터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누릴 수 있는 7개 부문 34개 프로그램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전국에서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청주시는 2013년 12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부터 지속가능발전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청주, 꽃과 나무가 가득한 숲의 도시로!

최근 청주 시민들은 도심 곳곳에서 소나무와 야생화 등 녹색의 아름다움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청주 지역의 민간단체와 기업, 시민이 함께 참여해 1004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생명수 1004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운호고등학교 숲 조성, 충북재활원과 충북노인종합복지관 녹색공간 조성, 본평동 띠늪지 조성, 명품가로수길 조성 등으로도 이어져 청주시는 말 그대로 '숲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유휴지 곳곳에 손바닥만한 작은 공원을 만들자는 '손바닥공원 조성사업'도 진행해 이미 100개 이상의 공원들이 들어섰다. 한편, 옛 물길을 다시 살리고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청주의 젓줄인 무심천을 시민들이 즐겨 찾는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무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개울을 덮어 도로를 만들면서 끊긴 녹지축을 연결하기 위해 쇠내울 공원, 산성로 도시 숲, 용담광장 도시 숲 등을 조성했다. 문암생태공원 일원에는 생태교육센터, 생태야영장, 에코브리지,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는 '청주 국제 에코 콤플렉스 조성사업'이 2015년 준공을 목표로 한창 진행 중이다.

청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재생도시로!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더불어 살맛 나는 도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쇠퇴한 도시 기능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와 농촌, 옛 것과 현재의 것이 공존하는 청주시가 유독 도시재생에 힘을 모으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을 지정했는데, 청주시는 쇠퇴한 도시의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상당구 내덕 1·2동, 우암동, 중앙동이 그 대상이며, 이 지역은 폐공장부지(청주연초제조창)를 활용한 공예·문화 산업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청주연초제조창은 2013년에 이미 청주국제 공예비엔날레 전시관으로 탈바꿈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청주연초제조창 외에도 청주시는 청주 지역의 근현대사를 대변해온 옛 건물들의 대변신을 이어가고 있다. 2012년, 흥덕구 개신동의 옛 국군기무사 터를 전국의 첫 여성친화공원으로 변모시켰다. 산책로에 턱이 없어 유모차를 자유롭게 끌 수 있고, 구두의 뒷굽이 빠지거나 끼지 않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등 공원 곳곳에 여성친화적 가치를 도입한 것이다. 청주역사는 원형 그대로를 복원하면서 주차장과 시민 쉼터를 함께 조성할 예정이고, 상당구 남문로 중앙공원 내의 옛 서울산부인과 건물은 청주직업문화센터로 재탄생된다. 흥덕구 사직동의 옛 KBS 청주방송국 또한 청주시립미술관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이처럼 청주시의 다양한 삶과 역사의 흔적들이 새로운 해석과 의미로 재탄생되면서 시민들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

청주, 기후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청정도시로!

현재 청주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쾌적한 청정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탄소와 오염물질 배출 저감효과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자전거길 조성사업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더 많은 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더 많은 가정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초록마을 만들기, 그린스타트운동 등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전체 시내버스 388대 중 384대를 저공해 천연가스 bus와 천연가스-하이브리드 bus로 교체했다. 또,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장에는 저녹스버너 설치를 지원하여 연료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2013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전시관으로 변신한 옛 청주연초제조창 건물(개막식에 참석한 우리대학 김윤배 총장, 우측에서 세 번째)

녹색도시 청주의 미래를 만드는 청주대학교의 힘

전국에서 유일하게 태양광 특구로 지정된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명문사학답게 청주대학교는 태양광에너지공학과를 전국 최초로 신설하고 녹색리더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찌감치 대학건물에 지열 냉난방시스템을 도입하고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청주대학교는 지속적인 녹색성장의 길을 보다 견고히 하고, 또 그 범위를 넓혀가기 위해 지열과 태양광, 도심재생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Solar Energy



국내 대학 최초로 지열 냉난방시스템을 실용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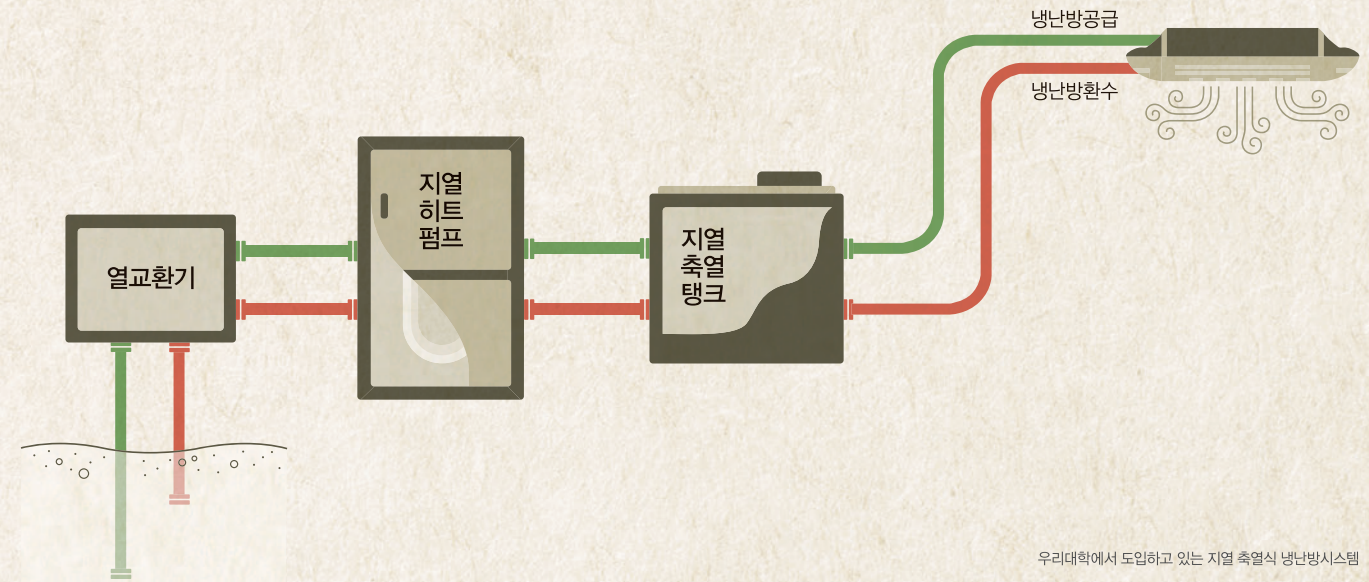
우리대학교는 지하수의 열을 건물 냉난방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2004년 국내 대학 최초로 실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깊이 350~500m의 땅 속에서 퍼 올린 13~15℃의 지하수를 온도조절 펌프를 통해 여름철에는 7~13℃로 낮추고, 겨울철에는 45~50℃로 높인 뒤 여기서 생기는 열로 건물을 냉난방하는 방식이다. 이산화탄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냉난방시스템이며, 열을 전도한 지하수는 폐쇄된 관을 통해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에 대한 걱정도 없다. 특히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건물 내 강의실과 연구실의 수업, 연구시간 등을 중앙통제실 컴퓨터 프로그램에 미리 입력시켜 냉난방 가동 시간과 실내 온도를 조절하고 있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에너지 관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시스템 도입 전후의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우리대학은 연간 4억 원 가량의 비용을 절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3개 건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지만, 2006년부터는 대학원과 보건의료대학, 미래창조관, 경상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예술대학, 음악관, 학생서비스센터, 인터내셔널 빌리지, 교수연구동 등 총 13개 건물이 지열 냉난방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는 캠퍼스 전체 건물의 70%를 차지하는 수준이며, 향후 리모델링 예정인 중앙도서관과 새천년종합정보관, 대학 본관 등에도 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열효율과 시스템의 안전성이 대단히 높아 전국의 대학은 물론, 정부청사 등 공공기관들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으며, 2008년 방문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대학을 '그린 경제에 가장 앞서가는 대학'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충북그린캠퍼스협의회, 에너지 저소비형 대학을 지향하다

2011년 11월, 충청북도와 도내 16개 대학이 캠퍼스 녹색생활을 이끌어가기 위해 충북그린캠퍼스협의회를 발족한 가운데, 우리대학은 그 중심에서 활약하고 있다. 협의회는 '에너지 저소비형 대학'을 만들어가자는 대전제 아래, 대학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들을 찾아 실천하고 있다. 학내 건물의 에너지를 10% 줄이고 그린제품, 친환경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등 크고 작은 실천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대학 김윤배 총장이 그린캠퍼스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해온 가운데, 2012년에는 우리대학에서 그린캠퍼스 전략수립 세미나를 개최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할 대학의 사명과 실천에 대해 열린 논의를 벌였고, 2013년에는 충북그린캠퍼스대학생협의회의 창립총회가 열렸다. 청주대, 충북대, 중원대, 한국교통대, 충청대, 충북보건과학대 등 6개 대학 환경 관련 동아리가 참여한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그린캠퍼스 조성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대학본부뿐 아니라 학생들 역시 지구와 에너지의 현주소를 직시하고, 녹색생활 속에서 그린캠퍼스를 유지해나갈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대학에서 도입하고 있는 지열 축열식 냉난방시스템

**21세기 녹색리더,
태양광에너지 전문가를 양성하다**

우리대학의 지열 냉난방시스템이 에너지 절감 대책에 고심하는 다 대학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것처럼 2013년 신설된 태양광에너지 공학과는 '녹색리더' 배출에 고심하는 여러 대학들의 주목을 받으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태양의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술은 에너지원인 태양이 존재하는 한 에너지 고갈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분야 가운데서도 핵심축을 이루고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대학들이 앞다투어 태양광 분야 연구 및 인재양성에 몰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08년, 도내 최초로 태양광연구소를 설치해 태양광 관련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우리대학은 2009년에는 국내 최초로 태양광트랙을 설치해 관련 전문가를 배출해왔다. 또한 2009년부터 청주시와 지식경제부로부터 태양광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아, 충북 테크노파크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탄탄한 교내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설된 태양광에너지 공학과는 관련 분야의 특화된 전문가 즉, 진정한 21세기 녹색리더를 양성하는 학과라는 점에서 남다른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학생들은 소재, 반도체공학, 물리, 나노공학, 화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를 섭렵하면서 태양광에너지의 생산과 저장에 관한 이론, 실습 등을 연마하게 된다. 저탄소, 친환경 녹색산업의 핵심이 될 태양광에너지 분야의 미래 리더들이 청주대학교에서 가장 먼저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대학교 교수진,
도시재생의 싱크탱크로 활약하다**

한편, 청주시의 도시재생을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모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대학 교수들의 활약은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2012년부터 제5대 회장으로 도쿄모모 코리아를 이끌고 있는 건축학과 김태영 교수는 청주 지역 근대건축의 보존과 재사용에 관해 다양한 연구 업적을 축적해왔다. 특히 65년 역사를 지녔지만 10여 년간 방치되었던 청주연초제조창이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전시장으로 부활하고, 또 그 후 새로운 시민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큰 힘을 보태고 있다. 도시계획학과 김영환 교수는 청주시가 2013년 3월 개설한 청주권 도시대학의 초대 학장으로 활약했다. 청주권 도시대학은 녹색수도 청주 건설과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할 지역의 리더와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매년 주제를 정해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환 교수 역시 2011년에 출범한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생태환경분과를 맡아 녹색수도 청주의 비전 및 정책 등을 꾸준히 제시해왔다. ④



태양광에너지공학과 학생들의 실험실습 현장



우리대학 미래창조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스템

Mini Interview

“태양을 밑천으로
진정한 지식 나눔을
실천합니다”

김제하 태양광에너지공학과 교수
태양광연구소 소장



지난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태양광에너지공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인재를 배출하게 되는지요.

한마디로 특화된 인재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태양광에너지 분야는 소재부터 반도체공학, 물리, 나노공학, 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엔지니어를 짧은 시간 내에 특정 학과에서 키워 낼 수는 없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지요. 이 모두를 통합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한 경쟁력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 학과는 태양광에너지의 생산과 저장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다룹니다. 그만큼 학습량이 만만치 않지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태양광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태양광 특구로 지정되어 있기에 도내 다양한 산업 인프라와의 연계 등 학과 발전의 긍정적인 면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태양광에너지 분야에 관한 한 충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충분한 산업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재와 셀, 모듈, 패키징, 장비, 시스템까지 밸리체인 구성이 아주 좋은 편이지요. 녹색성장이 화두로 떠오른 지는 이미 오래인데,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태 영향으로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시대의 흐름이 맞물려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기술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대학은 2013년 8월부터 충북태양광테마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과 연구, 정보제공, R&D 등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양광에너지는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태양광에너지 기술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태양광에너지 기술은 빛을 전기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태양전지(솔라셀)를 이용한 발전방식이죠. 화석 연료의 고갈을 앞두고 앞으로는 태양광에너지가 일상생활에, 특히 가전이나 IT기기 등에 굉장히 많이 적용될 겁니다. 현재는 넓은 공간을 확보해 태양전지 모듈을 여러 개 연결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빌딩 벽체나 달리는 차, 또 IT기기나 옷 등에 태양전지가 들어가 실시간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얼마 전 태양광을 동력으로 한 비행기가 미국 횡단에 성공한 것처럼, 오직 태양만으로 사람과 기계가 움직이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태양광은 한층 진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생활문화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미래를 움직이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자부심이 크실 것 같은데, 평소 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강조하시는지요.

우리는 엔지니어로서 후세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공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래지향적인 학문이지만 국내에선 아직 뚜렷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프론티어의 자세로 헤쳐나가야 할 처지라 저나 제자들의 어깨가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태양이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원을 우리의 지식을 활용해 에너지로 만들고, 그것을 약자나 소외된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친화적이고, 또 인간적인 학문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식 나눔이 가장 확실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태양광에너지 공학의 가치를 깨닫길 바랍니다.

**태양을 닮은 따뜻한 사랑,
지역과 나누고 더하다**

TIP

태양광에너지공학과와 태양광트랙 학생들의 지역봉사활동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을 사회와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대학 태양광에너지공학과와 태양광트랙 학생들도 충북 지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식나눔 봉사를 2년째 이어가고 있다. 도내 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해주는 이들의 노력은 관련 기업의 동참으로 이어져 그 의미가 남다르다.



2013년 청주에덴원에서 2014년 청주 베데스다의 집까지

지난해 5월 30일과 31일, 양일에 걸쳐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에 위치한 청주에덴원에서는 3kW급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공사가 한창이었다. 우리대학 태양광에너지공학과와 태양광트랙 학생들이 시험실습 중에 제작한 모듈을, 도내 기업인 ㈜다쓰테크와 ㈜위텍이 각각 인버터와 접속반을 제공하고 부강이엔에스(주)가 학생들과 함께 설치 시공에 나선 것이었다. 소외된 약자들을 위한 학생들의 봉사와 실천으로 청주에덴원은 앞으로 25년간 매월 10만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태양광에너지공학과와 태양광트랙 학생들의 봉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4월 30일, 이번에는 흥덕구 장암동 소재의 장애복지시설인 청주 베데스다의 집을 찾았다. 이곳에도 3kW급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하여 청주에덴원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식나눔에 앞장서고 있는 태양광에너지공학과

학생들의 이러한 지식나눔 봉사는 재학생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의미 외에도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 현장에서 교육실습과 사회봉사를 병행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학생들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아 신생학과인 태양광에너지공학과와 태양광트랙의 새로운 전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 개개인이 녹색수도 청주를 만드는 일에 일조하고 있음은 물론, 충북의 태양광에너지공학 분야를 선도하는 대학다운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러한 봉사활동은 2010년 11월부터 우리대학에서 수행 중인 태양광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지원하고 '생명과 태양의 땅'을 비전으로 내건 충청북도와 청주시, 관련 태양광 기업체 등이 후원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대학은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북도 내 시설들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세계 속의 청주, 청대 안의 세계

드넓은 세계를 향한 '글로벌'의 가치와 지역과의 소통과 교류를 바탕으로 세계를 꿈꾸는 '글로벌'이 공존하는 청주대학교에서,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삶'의 법칙을 배웁니다.

GLOCAL REPORT

14 · Global Today

옛날 전통 그대로!
전통 성년례 현장 스케치

16 · Global Challenge

지상낙원 하와이에서 성장한
나의 꿈, 나의 미래

18 · Local Together

길 위에서 청춘의 희망을 발견하다!
제2회 WOW 기업도보대장정



전통 성년례 현장 스케치

옛날 전통 그대로!

스무 살 성년례를 통해 진짜 어른이 되다

삼한시대 마한에서는 소년들의 등에 상처를 내어 줄을 꿰고 통나무를 끌면서 그들이 훈련받을 집을 직접 짓도록 하였고, 고려 광종 때는 성년이 된 태자에게 어른의 평상복인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성년식은 성인으로서의 자각과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는 깊은 의미를 지닌다. 지난 5월 19일, 청주대학교 학생들은 장미꽃과 향수 대신 갖을 쓰고, 비녀를 꽂은 모습으로 스무 살 성년을 맞았다. 전통 방식 그대로 성년이 됨을 축하한 그날의 현장 분위기를 전한다.

장미꽃과 향수 대신 갖을 쓰고, 비녀를 꽂다

기념식에 이어 거행된 제2부 전통 관례 행사는 청주향교의 주관으로 치러졌다. 인문대학 송재국 학장이 주례를 맡아 삼가례(三加禮)와 가관례(加冠禮), 초례(醮禮), 자관자례(字冠者禮), 성년선언(成年宣言), 수훈례(垂訓禮)의 순서로 진행된 전통 성년례는 학생들에게 생생한 전통 체험의 장이 되었다. 관자(冠者)에게 세 번째 관을 씌워주는 의식인 삼가례를 시작으로, 가관례는 비로소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로 남자에게는 관(갓)을 씌우고 여자에게는 비녀를 꽂아주는 의식을 말한다. 이어 거행된 초례는 술 마시는 법도와 교훈을 일깨워 주는 의례이며, 자관자례는 성년이 된 자에게 자(字)를 지어주고 그 뜻을 설명해 주는 의식이다. 마지막 순서로 거행된 수훈례는 평생토록 교훈으로 삼을 만한 선현의 말씀을 낭독해 주는 시간이다. 장미꽃과 향수 선물에만 익숙해있던 학생들은 처음에는 신기한 듯 다소 어색한 표정을 짓기도 하였으나 우리의 고유한 의식을 거치면서 원래의 성년례가 내포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모습이였다. 이날 행사에 관자(남자 성년자)로 참가한 우리대학 문헌정보학과 1학년 정우호 학생은 “머리에 관을 쓰며 성인이 됐다는 무게감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스스로에 대한 책임은 물론, 사회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는 성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지난해에 이어 진홍위(金鴻宇), 판하오위예(范皓月) 학생 등 우리대학에서 성년을 맞이한 중국 유학생 2명이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④

성년례 순서



삼가례 三加禮

성인이 입는 세 가지의 복장 즉, 평상복과 외출복, 관복으로 갖을 입히는 의식



가관례 加冠禮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로 남자에게는 관(갓)을 씌우고, 여자에게는 비녀(또는 족두리)를 꽂아주는 의식



초례 醮禮

성인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술잔을 내려주고 술 마시는 법도와 교훈을 일깨워주는 의식



자관자례 字冠者禮

성인이 된 자에게 이름 대신 항상 부를 수 있는 자(字)와 함께 그 의미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의식



성년선언 成年宣言

관례를 마치고 마침내 성년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의식



수훈례 垂訓禮

평생토록 교훈으로 삼을 만한 선현의 말씀을 낭독해주는 의식

어른들의 축하와 격려로 시작된 뜻깊은 스무 살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은 그 해 성년을 맞는 이들에게 매우 특별한 날이 아닐 수 없다.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당연히 거듭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9일, 우리대학 대학문화관 문화극장에서는 올해 스무 살이 되는 청대인들을 위한 전통 성년례가 열렸다. 본격적인 전통 관례 거행에 앞서 열린 제1부 기념식에는 김윤배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학생들은 우리 사회가 바라고 기대하는 유능한 인재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윤배 총장은 “성인이 된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 정당한 권리의 행사와 사회적 책임의 이행으로 집약될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수행하고, 건전한 사고와 절제된 행동으로 능력을 배양해달라”고 당부하며, 성년이 된 학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Mini Interview

나와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어른이 되겠습니다

전통 성년례 참가한 외국인 유학생, 진홍위(중국, 한국어교육센터 연수생)



“작년 11월부터 청주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익힌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요즘인데, ‘전통 성년례’라는 특별한 경험까지 할 수 있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유학생으로서 한국 전통의 성년 의식에 참가했다는 건 정말 큰 행운 같아요. 관을 쓰고, 전통의상을 입고, 절차에 따라 의식을 치르고 나니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책임을 다해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한국어를 열심히 익혀 청주대학교에서 태양광에너지공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중국에 돌아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전문인으로 활약할 날을 기대하며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지상낙원 하와이에서 성장한

나의 꿈, 나의 미래

하와이 퍼시픽 대학교 어학연수 후기

여름이면 누구나 한번쯤 꿈꾸게 되는 최고의 휴양지, 하와이. 대학생들에게 하와이는 영어연수를 떠나고 싶은 곳 1순위로 손꼽히고 있다. 현재 우리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하와이 퍼시픽 대학교(Hawaii Pacific University)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여름, 국제교류팀이 운영하는 우수신입생 하계방학 장학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하와이에서 8주간의 영어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에게 하와이는 여전히 선물 같은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생애 최고의 순간을 선물한 하와이, 내 꿈의 자양분이 되다

박세희 연극학과 1학년

대학 새내기로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던 지난 여름, 꿈에 그리던 어학연수 준비까지 함께 하게 되어 첫 학기 내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2013년 6월, 종강을 이틀 앞두고 드디어 하와이로 향하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같은 과 동기도 함께 가게 되어 심적으로 큰 힘이 되었다. 드디어 하와이 도착! 기숙사에 짐을 풀고, 앞으로 내가 공부하게 될 대학 캠퍼스를 둘러보며 8주간의 행복한 시간을 미리 그려보는 것으로 연수 생활을 시작했다. 전반적으로 하와이의 풍광은 변화한 도시 느낌이 강한 서울과는 전혀 다른, 어딜 가든 평화롭고 여유가 넘치는 휴양지의 모습 그대로였다. 살짝 더운 날씨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내가 이곳 하와이에 연수생 자격으로 와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기뻐다. 도착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수업이 이루어졌다. 아침 8시에 등교해 오후 12시까지 영어수업을 받아야 했다. 전반적인 수업 분위기는 매우 차분했고, 영어연수를 목적으로 이곳을 찾아온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대하는 교수님들도 정말 친절하셨다. 대학의 전반적인 면학 분위기 역시 하와이가 주는 느낌과 매우 흡사했다. 그곳 학생들은 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편이었고, 언제나 여유롭고 느긋한 생활을 즐겼다. 또 누구에게나 친절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과제를 수행해야 했는데, 그 시간이 나의 영어실력 향상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과제가 생각보다 많아서 당황하기도 했지만, 해내고 나면 정말 원어민이 된 것처럼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문득 내게 주어진 8주의 시간 동안 영어공부만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기엔 여러모로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함께 간 동기와 하와이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와이키키 해변을 찾았다. 넓고 푸른 바다, 맑은 하늘, 기타를 치고 수영을 하며 휴양을 즐기는 사람들... 그 순간은 정말 잊지 못할 경험 이었고, 하와이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순간이었다. 또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와이에서 만났던 친구들이다. 브라질 친구와 나눴던 신나는 축구 이야기, 일본 친구와 나눴던 우리나라의 병역문화, 사우디아라비아 친구와 나눴던 자국의 일처다부제에 대한 생각 등 매일 새로운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음을 고백한다. 지금까지도 그때 만났던 친구들과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있다. 하와이 어학연수 이후 나는 좀 더 넓은 세상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새로운 포부가 생겼고, 꿈이 배우인지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폭넓은 연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도 생겼다. 앞으로 배우가 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갈 나의 미래에, 하와이에서 보냈던 시간은 분명 커다란 자산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와이, 세상을 보는 넓은 시각과 새로운 꿈의 시작점

최희정 간호학과 2학년

지난 여름,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다녀온 하와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든 생각은 하늘이 정말 아름답다는 것이었다. 마치 새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린듯한, 한국에서는 한번도 본 적 없는 하늘이었다. 다음날 함께 간 한국인 학생들과 함께 HPU(Hawaii Pacific University)를 찾아가는 동안에도 나는 줄곧 '말이 안 통하면 어쩌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였다. HPU의 많은 관계자들이 도움을 주고, 테스트를 거쳐 수준별로 수업을 듣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었다. 매달 마지막 주에는 평가와 시험이 있는데, Speaking 수업의 경우 2명씩 다른 나라 친구들과 짝을 이루어 함께 PPT를 만들어 발표하기도 했다. 또, HPU의 생활수칙 중에는 수업시간에 같은 나라 학생과 옆자리에 앉지 말 것, 건물 내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지 말 것 등이 있었는데, 덕분에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할 기회가 많아져 Speaking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말을 걸었을 것 같으면 미리 겁먹고 도망가기 일쑤였는데, 하와이 연수 이후 '외국인 울렁증'도 없어지고 용기가 많이 생겼다.

이렇듯 모든 수업이 영어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수업은 Grammar 수업이다. 단순히 문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선생님들의 문법 설명을 들으면서 퀴즈 많이 트이고, 수업시간에 배운 문법을 활용해 친구들과 수시로 토론을 하다 보니 Speaking 실력도 저절로 늘게 되었다. 그리고 HPU 사무실에 가면 Activity 캘린더가 있었는데, 본인이 꼭 가보고 싶거나 하고 싶은 일을 미리 작성해놓으면 방과 후 학교 담당자, 학생들과 함께 교외로 나가 원하는 Activity를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Surfing, Sailing, Cheese Cake Factory 방문, 동물원 투어 등 다양한 체험을 했고, 같은 수업을 듣지 않는 친구들과도 친해지는 기회가 됐다. 많은 Activity에 참여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Sailing이다. 배를 타고 바다 한 가운데로 나가 두 번 다신 보지 못할 것만 같은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멋진 추억을 만들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Skydiving을 꿈꿀 수 있는데,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하와이의 바다는 정말 환상적이었다. 벌써 10개월이 지난 하와이 생활. 그곳에서의 잊지 못할 경험 이후 나는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다. 간호사가 되어 외국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언제나 먼저 다가와 스스럼 없이 도와주는 외국인들을 보면서 좋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다. 풍부한 해외경험이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

경제학과 돌고래기획단 주최 제2회 'WOW 기업도보대장정'

두 발로 구석구석!

길 위에서 청춘의 희망을 발견하다

“내 거친 발걸음이 내 스토리에 한 획을 긋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WOW 기업도보대장정'의 슬로건이다. 우리대학 경제학과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 이 행사는 취업문제와 지역 기업 인력난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야심찬 프로젝트로,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있다. 도보대장정에 참가한 160명의 학생들은 3박 4일간 충청북도 곳곳에 위치한 기업들을 탐방하며 청춘의 오늘을 힘차게 걸었다.



1코스 | 증평산업단지(두산전자, SK이노베이션, 농협 홍삼) → 괴정리 마을회관 → 오창산업단지(그린광학, 충북테크노파크, 중소기업청) → 충북희망원 → 오산2리 마을회관 → 오송산업단지(메타바이오메드) → KBS 청주 → 청주대학교

2코스 | 광혜원산업단지(한국야금) → 삼성산업단지(오더스) → 대풍산업단지(한독약품) → 이원농공단지(제니스월드) → 성평회관 → 건국유업 → 모정2리 마을회관 → 오창산업단지(녹십자, 충북테크노파크, LG화학) → 청주대학교

3코스 | 증평산업단지(두산전자, SK이노베이션, 농협 홍삼) → 화성2구 마을회관 → 오창산업단지(그린광학, 충북테크노파크, 에코프로) → 새터 마을회관 → 청주산업단지(한국도자기, 킨텍스, AT농수산물통센터) → 충북재활원 → 청주대학교

4코스 | 오창산업단지(엔에스, 충북테크노파크, 한림의료기) → 쌍청2리 마을회관 → 오송산업단지(기린화장품) → 민음의 집 → 석화리 마을회관 → 청주산업단지(SK하이닉스, 수산기계이엔지, AT농수산물통센터) → 청주대학교

5코스 | 현도산업단지(하이트진로) → 부용산업단지(한화L&C Tech) → 보통1리 마을회관 → 조치원산업단지(한국유나이티드, 제이비엘) → 영명보육원 → 오송5구 마을회관 → 청주산업단지(SK하이닉스, 킨텍스, AT농수산물통센터) → 청주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기업 탐방 프로젝트

우리대학 경제학과 스터디 그룹인 '돌고래기획단(지도교수 김영배)'은 작년부터 'WOW(Walking On Workplaces) 기업도보대장정'의 기획부터 진행까지 모든 과정을 전담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업탐방과 국토대장정의 결합 방식으로, 충청북도 내에 있는 기업들을 학생들이 직접 도보로 탐방하는 프로젝트다.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을 재조명하여 도내 지역에도 우수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지역 내 취업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취업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찾자 시작한 일이 큰 반향을 불러모았고, 점차 많은 학생과 기업이 관심을 갖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출정식을 갖고 24일부터 3박 4일간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번 대장정에는 청주대학교 재학생 110명을 비롯해 충북대와 서원대, 한국교통대, 세명대 등 인근 대학 5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충청북도 전역을 다섯 개의 코스로 짜서 각 팀마다 32명의 대원들이 7~8개의 기업을 탐방했다.

이들이 둘러본 기업은 모두 25개였고, 평균 70km 정도를 걸었다. 지난해 7월에 있었던 1회 행사에서 1개 코스 50여 명이 총 11개 기업을 탐방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놀라운 성장이다. 모든 탐방이 끝난 26일 저녁에는 우리대학으로 집결해 취업콘서트를 열었다. 탐방 기업 중 하나인 하이트진로의 청주지점장과 취업 컨설턴트도 한자리에 모여 학생들과 함께 취업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이번 도보대장정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160명의 대원들, 5개 코스 70km 대장정에 도전하다

160명의 대원들은 'HIGH 5'를 컨셉으로 짜여진 5개의 코스를 따라 각기 다른 루트의 기업탐방에 나섰다. 2013년 1회 대장정 때에는 탐방 지역이 오창, 오송, 청주산업단지에만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북쪽에 위치한 광혜원부터 남쪽의 현도까지 그 범위를 넓혀 충청북도 내에 더 많은 기업을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많이 걸어야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각 코스 담당자는 현장답사를 통해 사전에 안전한 길을 찾아 완벽히 숙지하는 등 사고가 없도록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도내 25개 기업 탐방, 마을과 시설 봉사활동도 병행

대원들은 탐방 기업마다 기업 설명과 공장견학을 통해 해당 기업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 개척에 도움될 만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었다. 어떤 기업이며, 도내에서 또 국내에서 어떠한 규모의 일을 진행하는지 이해하면서 지역 주민이자 대학생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기회가 되었다. 방문하는 기업마다 학생들이 직접 걸어서 도내 기업들을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부분 놀라워했고,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다. 또, 대원들은 자신이 머물렀던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마을 방범과 청소 봉사를 진행했고, 지역 어린이 보육시설과 장애우 시설에도 방문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경험했다. ㉠

방문 기업

두산전자, SK이노베이션, 농협 홍삼, 그린광학,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중소기업청, 메타바이오메드, 기린화장품, 한국야금, 오더스, 한독제약, 건국유업, 제니스월드, 녹십자, LG화학, 에코프로, 한국도자기, 킨텍스, AT농수산물통공사, 엔에스, 한림의료기, 수산기계이엔지, SK하이닉스, 하이트진로, 한화 L&C Tech, 제이비엘

복지 시설

충북희망원, 민음의집, 영명보육원, 충북재활원



충청북도 내 기업들을 도보로 탐방하는 WOW 기업도보대장정 행렬



지역 내 복지시설에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학생들

우리가 만드는 진짜 우리만의 이야기

TIP

WOW 기업도보대장정을 이끄는 경제학과 '돌고래기획단'

경제학과의 '돌고래기획단'이 충북 지역 대학생들의 사회진출과 취업문화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취업이라는 하나의 큰 벽을 재미있게 헤쳐가자"며 뭉친 이들은, 스펙보다는 스토리를 만들어가며 '나만의 이야기'를 쓰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누구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회에 대한 연습과 실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스펙보다는 스토리를 만들자!

스토리(Story)가 스펙(Specification)을 이기는 시대다. 2012년 9월, 취업을 준비하고자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던 6명의 경제학도는 이 점을 놓치지 않았다. 더 당당한 모습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했고, 그러기 위해선 스스로의 가능성과 한계를 되짚어 볼 다양한 경험이 필요했다. 이들은 다양한 공모전과 박람회에 참여하고,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젊은 날 충전해야 할 자양분을 하나 둘 채워나가고 있다. '돌진하여 고요하고 잔잔한 내 인생에 래퍼 토리를 바꾸자(이하 돌고래)'는 의미를 가진 기획단의 이름처럼 자신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조직 구성 | 현재 1기 6명, 2기 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학생대표 및 총괄팀장을 중심으로 대외협력부, 인사부, 오프라인 홍보부, 온라인 홍보부, 운영지원부로 조직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주요 활동 | WOW 기업도보대장정 기획 및 진행, 각종 컨퍼런스와 박람회 견학 및 참가, 글로벌 프론티어 공모전 참가, 학교 공모전 및 학술대회 참가, 농심 공모전 외 다수 공모전 참가, 렉서를 프로젝트 진행, 한상 프로젝트 진행, 와우 프로젝트 진행,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참가

최고 대표작이 된 WOW 기업도보대장정

WOW 기업도보대장정은 말하자면, 돌고래기획단의 대표작이자 최고의 히트작이다. 색다른 일을 만들어보자는 시작의 일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 우리대학을 대표하는 연중행사가 되었고, 충북 지역 내 대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는, 지속 가능한 형태의 행사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특히 1기와 2기가 힘을 모아 행사를 준비했는데, 1기는 기획 전반과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2기는 서포터즈 선발과 통솔, 코스별 담당을 맡아 손발을 맞췄다. 특히 작년에는 없던 서포터즈를 뽑아 대장정 홍보와 직접 보고 싶은 기업을 선정함으로써 참가 학생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다.



돌고래기획단장 정대욱 학생이 말하는 'WOW 기업도보대장정'

"이번에 제2회 WOW 기업도보대장정을 진행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좀 더 많은 기업을 더 많은 학생들에게 알려줄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충청북도에 좋은 기업이 많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작년 대장정을 통해 알게 되었고, 더 많은 학생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개의 코스를 만들고, 서포터즈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부족해 여전히 대기업을 선호하는 구직자들이 많은데, 우리의 대장정이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인.보(淸人譜) 청대인의 삶과 철학을 기록하다

걸어온 삶으로, 살아온 궤적으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말하는 청대인.
그들이 건네는 이야기 속에서
삶의 경이로움을,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발견합니다.

WOW PEOPLE

22 · 청인보 제1장

남양유업 대표이사
이원구 동문



26 · 청인보 제2장

국내 PR계의 권위자,
광고홍보학과 김찬석 교수



28 · 청인보 제3장

6.25 참전용사 다큐 제작한
'카사노바' 회장 송영욱 학생



신뢰와 소통으로

남양유업의 새날을 열다

남양유업 대표이사
이원구 동문 법학과 76학번

'남양맨'으로 한길 인생을 살아온 이원구 동문이
지난 3월 신임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오랜 세월 그가 밟아온 신뢰의 길은 곧
'덕장(德將)'의 길이었다. 고객의 마음을 꾸준히
얻고, 그 힘으로 남양유업을 세계적인 식품회사로
성장시키고 싶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남양유업의
새로운 미래가치인 '착한 경영'을 실천해가는
이원구 동문의 꿈은 '더불어 성장'이다.



31년 남양맨으로 달려온 한결같은 삶

이원구 동문은 말 그대로 ‘한우물 인생’이다. 1964년 창업 이래 유아식 전문기업의 길을 걸어왔고 이제는 글로벌 식품회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남양유업에서 31년 동안 ‘남양맨’으로 살아온 것이다. 1983년 입사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이곳이 본인의 평생 일터임을 잊은 적이 없는 그는 총무부부장, 천안공장 공장장, 총무담당상무, 경영지원본부장, 총괄수석본부장의 자리를 거쳐 마침내 지난 3월,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3천5백여 명의 직원들과 1천5백여 대리점, 그리고 수많은 협력업체를 아우르며 회사의 내일을 만들어내야 하는 자리에 오른 것이다.

“무엇보다 평사원으로 시작해 대표 자리에까지 오른 것이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입니다. 되고 싶다고 되는 자리도 아니고, 그간의 노력이 답을 해준 것 같아 기쁩니다만,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회사를 어서 빨리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최근에 문을 연 나주공장을 포함해 천안과 경주, 세종 등의 5개 공장에 대한 품질안전관리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이원구 동문은 고객과의 신뢰회복을 대표이사로서의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 창립 50주년이 되는 올해, 회사의 수장이 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는 그는 그간 술 선수범과 회생정신으로 다져온 자신만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리라 다짐한다. 리더는 신뢰 그 자체여야 한다는 신념으로 남양유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마치고 다시 출발선에 섰다.

리더 스스로 신뢰의 대명사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

오직 한 직장에서만 31년을 보낸 ‘베테랑 셀러리맨’의 내공은 무엇이었을까. 이원구 동문은 특히 노사가 대립할 때마다 회사 안팎에서 유능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왔고, 또 인정받아왔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까지 노사관계가 격변기를 지나고 있을 무렵, 남양유업도 노사대립과 파업이라는 쓰라린 경험을 해야 했다. 그때마다 함께 성장하자며 노사화합 선언을 이끌어내고 성숙한 노사관계를 다져갈 수 있었던 것에는 이원구 동문의 노력이 큰 힘을 발휘했다. 특히 유가공업계 최초로 2007년부터 7년 연속 임금단체협상을 무교섭으로 타결한 것은 그에게도 가장 잊지 못할 일로 기억된다.

“제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착한 경영’을 선포했는데, 이는 지난 세월 동안 무수한 일을 겪어오면서 깨달은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신뢰를 형성하자는 우리 회사의 기업문화에 바탕을 둔 것이기도 하지요. 특히 노사관계의 고비 때마다 저는 서로간의 신뢰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회사가 고객을 떠나서 그 운명을 생각할 수 없듯이, 회사와 구성원도 서로 마찬가지로입니다.”

고객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그는 착한 인재가 되자고, 정직한 제품을 만들자고, 열린 회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능력과 겸양을 갖춘, 반듯한 인재를 키우는 일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원료 엄선에서부터 생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최고여야 정직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며 전 구성원에게 매일 긴장의 끈을 조여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내부는 물론, 협력업체와도 소통이 살아 숨 쉬는 유연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상생의 문화를 더 키워갈 생각이다. 이원구 동문은 이 모든 제안이 성공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바로 신뢰라고 믿는다. 조직은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지만, 결국 경영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사관계의 고비 때마다 저는 서로간의 신뢰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회사가 고객을 떠나서 그 운명을 생각할 수 없듯이, 회사와 구성원도 서로 마찬가지로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높여주는 ‘믿음’이라는 동력

이렇듯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 인생을 다독여 온 이원구 동문에게 모교인 청주대학교는 ‘자기 신뢰’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준 무대였다. 법학도의 본분이라 여기며 암자에서 고시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도서관의 많은 책들과 씨름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진로를 바꿔 바늘구멍보다 좁았던 취업의 길을 열고자 애쓴 동안에도 그를 곳곳이 세워주었던 것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었다.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믿었고, 해낼 수 있다고 믿었다.

“저는 워낙 조용하고 과묵한 성격이어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학생이었지만, 그때부터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마음먹은 것을 실행하는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저를 믿듯이 누군가를 믿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조직, 사회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그는 회사의 나눔 활동에도 그 생각을 이어가고 있다. 취임 직후 시작한 식품나눔 캠페인을 비롯해 펄벅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다문화가정 지원 등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다. 최근에는 업계 최초로 대리점주 자녀들에게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고, 또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기로 해 화제를 모았다. 굳건한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이어지면, 훗날 남양유업은 어떤 그림을 완성하게 될까.

“유가공업체로서 가장 기본이자 생명과도 같은 존재인 우유제품 개발에 집중하면서 2020년까지 매출 3조원의 글로벌 종합 식품회사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목표입니다. 해외에서 분유와 커피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수출 규모 1천억을 달성할 생각입니다.” 애정으로 키워온 회사의 미래를 조망하고, 성공을 향해 하나 둘 퍼즐을 맞춰가겠노라는 리더의 다짐은 부드럽고도 강하다. 우유 맛의 본질을 선보여 10년간 꾸준히 사랑받는 장수식품이 된 남양유업의 ‘맛있는 우유’처럼, 이원구 동문은 고객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맛있는 길’을 찾아갈 것이다. 31년 동안 자신을 키워온 믿음의 힘으로. ❷

관계와 조율의 힘을 믿는

소통전문가

광고홍보학과 교수, <PR 직업> 저자
김찬석 교수

진정으로 멋진 소통은 좋은 관계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가 현을 고르듯 끊임없이 사람 사이를 조율해나가는 것이다. 삶이 곧 PR이라며 ‘관계’와 ‘조율’ 속에서 소통의 원칙을 찾아가는 김찬석 교수는 국내 PR 분야에서 다양한 실전을 경험한 소통전문가이자 권위자로 통한다. PR이 지닌 긍정의 힘으로 세상의 만족지수를 높여가고 싶은 그의 측은 늘 살아 있고, 언제나 뛰고 있다.



질문마다 예외 없이 ‘첫 번째, 두 번째’로 말문을 떼며 생각을 명료하게 정리해준다. 그리곤 물줄기가 흐르듯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어간다. 그 이야기들이 귀에 쏙쏙 들어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고, 어느새 공감의 폭이 넓어지는 자리가 된다. 그렇게 김찬석 교수는 인터뷰 내내 PR계의 권위자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PR은 관계의 철학이자 실천입니다. 동시에 의미의 나눔과 공유이기도 해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할 것인지, 또 어떻게 좋은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해나갈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PR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삶 자체가 PR일지 모른다는 그는 PR학을 관계학이자 조율학이라고 말한다. 기업과 정부는 물론이고 개인이 지니고 있는 좋은 생각들, 이른바 콘텐츠들을 어떻게 선보이고 자신의 신념대로 펼쳐가느냐는 순전히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또 갈등은 제대로 잘 조율해가고 있는지에 달렸기 때문이다.

2005년 청주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로 부임하기 전까지 14년 동안 그는 다양한 PR 현장에서 보석 같은 실천경험을 쌓았다. 한국연구재단의 과학기술 홍보, 제일기획의 기업 홍보 업무를 거쳐 미국 유학 후에는 인천공항공사에서 투자와 항공사 유치 등의 해외 홍보를 담당했고, 이후 시티은행 홍보이사를 지내면서 금융 PR계에 수많은 이슈를 만들어왔다. 그 가운데 한국YWCA와 손잡고 2003년부터 시행했던 ‘한국의 여성지도자상’ 제도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문화로 정착되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또, 2012년에는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의 자문위원을 맡으면서 국내외 홍보전략을 담당하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더하기도 했다. 그 많은 커뮤니케이션 현장을 거치면서 김찬석 교수가 선물처럼 얻은 것이 있다면 바로 균형감이다.

“PR은 항상 누군가 상대가 있는 일입니다.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일하기에 균형감을 잃으면 일을 그르치기 쉽지요. 처음엔 저도 많은 연습이 필요했지만 점차 상황과 사건, 일과 사람 간의 균형점을 찾게 되고, 또 그 감각이 확장되어가더군요.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쉽게 흥분하거나 동요하지 않는 것 역시 그 덕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 <PR 직업>이라는 책을 펴낸 것도 국내 2백여 PR 회사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 학과 학생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그 균형감을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언론관계 전문가, 위기관리자, 글로벌 PR인, 정책 홍보인, PI 전문가 등 PR 분야 10개의 직업을 상세히 설명해놓은 이 책은 국내외를 망라하고 처음으로 출판된 PR 직업 정리서다. 학생들에게도 항상 생각만이 아닌 실례와 실천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그는 제자들이 ‘관념적 공부’가 아닌 손과 발이 따라가는 공부에 빠져들길 바란다.

“몇 년 전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방문 교수로 갔을 때의 일입니다. 4학년 수업에 참관했는데, 한 학기 내내 졸업한 실무자들을 초대해 현장 이야기를 듣고 토론을 하더군요.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Top을 달리는 대학에서 그동안 제가 추구해온 교육방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PR은 머리의 학문이 아니라 손과 발의 학문이고,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일까. 김찬석 교수의 연구실은 늘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로 붐빈다. 진심을 다해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들어주고, 유용한 실례를 찾아가며 배움의 영역을 확장해주는 길잡이 역을 자처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기업과 소비자 간에 좋은 관계를 만들까, 또 정부와 국민 간 상생적 관계 구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제 고민과 숙제는 끝나지 않겠지요. 제 주변을, 이 사회를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정열적으로, 또 유쾌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살아 있는 소통으로 말이죠.”

소통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도전하고 도모하는 그가 이번 여름방학에도 또 하나의 ‘실례’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전국 5개 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중심이 된 ‘대학생 소통포럼, NEXT’를 이끌면서 사회통합과 소통에 새로운 물꼬를 틀만 한 생각들을 모을 것이라 한다. 비판이 필요한 곳에는 건강한 비판, 대안 있는 비판, 발전적인 비판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 CJB 청주방송 <시사펀치> 코너에서 시사평론가로서의 활동도 시작했다. 소통을 통한 휴머니즘을 실천하기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행보다. ④

25인의 전쟁 기억,

가슴으로 기록하다

사진영상동아리 '카사노바' 회장
송영욱 광고홍보학과 3학년

지난 6월, 조금 특별한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청주시에 거주하는 25인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인터뷰 영상이었다. 6월 1일부터 25일까지 매일 한 편씩 공개된 이 인터뷰 영상은 우리대학 광고홍보학과 사진영상동아리 '카사노바(Ca4Nova)' 팀이 모든 제작과정을 총괄했다. 동아리를 이끌고 있는 송영욱 학생을 비롯한 팀원들은 이번 작업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한국전쟁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전쟁이 나고 우리 동네에서 네 명이 군대를 갔어. 한 소대에 같이 있으면서 낮에는 전투를 하고 밤에는 후퇴하기를 반복했지. 주먹밥 9개를 철모에 받아다가 하나씩 나눠 먹었는데, 어느 날 보니 두 명밖에 안 남은 거야. 둘이 붙잡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

(25인의 영웅) 제24화 전철하 편 中

‘6월은 호국보훈의 달’, ‘6.25전쟁은 동족상잔의 비극’. 이런 말들은 어느덧 무미건조한 표어로 남았다. 대한민국의 가장 슬픈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눈물과 뜨거운 피를 흘렸던 사람들. 참혹한 전쟁을 겪은 그들의 슬픈 이야기들은 왜 조용히 사라져가고 있을까. 국가보훈처는 2014년 6월을 기해, 오직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던 그때 그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오늘의 젊은 세대에게 다시금 전하고자 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래서 선택한 이들이 바로 우리대학 광고홍보학과 사진영상동아리 ‘카사노바(Ca4Nova)’였다.

“저희 동아리는 2001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동안 UCC 제작 등을 통해 다양한 공모전에 계속해서 도전해왔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충북지방경찰청의 공원관리 UCC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이번 청주보훈지청의 ‘6.25 참전용사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5인의 영웅- 전쟁 속 그분들의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25편의 영상 제작을 진두지휘했던 회장 송영욱 학생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귀한 경험을 했다. 그렇기에 더 공을 들여 작업에 몰입했다.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 분 한 분을 만나 1시간 가량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영상을 만들었어요. 3개 조로 나누어 움직였는데, 관련 이미지를 제공받거나 빌리기도 했지만 저희가 직접 그림도 그리고, 영상에 필요한 작은 소품을 만들어 전쟁터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12명의 학생들이 인터뷰, 동영상 편집, 자막 등 모든 과정을 척척 해냈고, 편집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새벽까지 작업하기 일쑤였다. 잊혀질 뻔했던 스물다섯 분의 이야기, 스물다섯 개의 전쟁 기억은 그렇게 차곡차곡 기록되었다. 영상에 대한 반응은 의외로 뜨거웠다. KBS, MBC, YTN 등에서 카사노바의 다큐멘터리 제작 소식을 보도했고, 인터뷰 요청도 이어졌다.

“처음 시작할 때는 단순히 일로 생각하며 임했는데, 점차 저희도 ‘아, 이 모든 게 정말 쉽게 잊어선 안 되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나가 동료들의 죽음을 지켜본 기억을 끄집어내는 할아버지들의 아픔이 저희에게도 전해져 왔으니까요. 특히 우리 세대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며 한 번쯤 6·25전쟁과,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지난 봄과 여름, 카사노바 학생들은 그들의 땀과 노력으로 제법 큰 일을 해냈다. 이후에도 사진과 영상을 통한 다양한 소통을 고민하고 있다. 여러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송영욱 학생이 배운 것은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카메라를 들면 미처 몰랐던 삶들이 보입니다. 삶 속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세상을 사는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제 생각을 시각적으로 완성하는 과정이 즐거워 광고홍보학과를 선택했는데, 앞으로 방송 분야든 광고 분야든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의미를 갖게 해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무심히 스쳐 지날 법한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모습을, 그리고 그 시대 평범한 젊은이의 모습을 비춰내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카메라 렌즈가 아니라 활짝 열린 마음의 창이었을 것이다. 6월은 이미 지나갔지만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를 직접 만나보는 일은 아직 늦지 않았다. 만남의 장소는 유튜브, 키워드는 ‘25인의 영웅’이다. ㉠





나를 둘러싼 세계를
경청하라!
귀가 아닌 뜨거운 마음으로

한바탕 떠들썩한 웃음 소리도,
매일 아침 들려오던 경쾌한 발 소리도 잠시 멈췄다.
바람도 없이 그저 고요하기만 한 한낮의 오후,
문득 머리 위에 작은 평화가 내려앉았다.

뜨거운 정적과 적막 안에서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청춘의 이야기를 듣는다.
온 마음을 다해 나를 둘러싼 세계를 경청한다.

청대인의 인연과 추억을 하나로 엮다

뜨거운 청춘의 시절을 함께한 사람들,
소중한 인연의 끈을 오래도록 이어준
지나간 시간과 추억이 가슴 속에 존재하기에,
그들은 여전히 변함없는 '청대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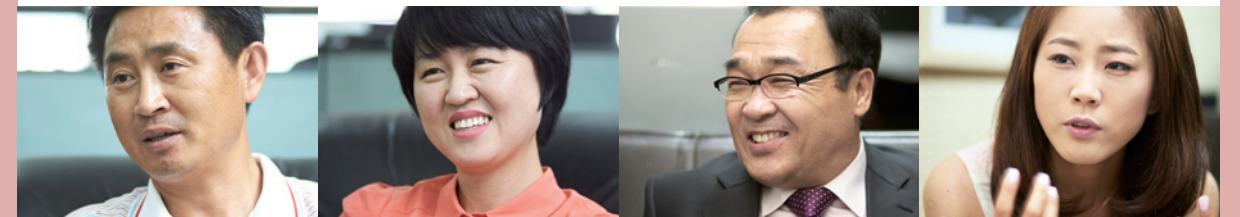
WOW MESSENGER

32 • Bravo Your Life

남다른 부부애와 동지애,
경찰부부 김은호·안정희 동문

34 • Beautiful Reunion

음악으로 맺어진 아름다운 인연,
음악교육과 이래근 교수·소프라노 한윤옥 동문





남다른 부부애와 동지애로

치열한 경찰의 삶을 살다

사랑하는 이들은 마주 서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보다 나란히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더 행복하다 했던가. 부부의 길과 동료의 길을 나란히 함께 걸어온 김은호, 안정희 동문은 두 배로 행복한 삶을 누릴 줄 아는 이들이다. 대학시절 학과 선후배로 만나 같은 해에 경찰관이 된 이들은 제천시민의 진정한 '부부 지팡이'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서로를 다독거리며 열혈 경찰관으로, 모범 경찰관으로 살아가는 부부 경찰의 이야기는 시종일관 흥미진진했다.



김은호 동문
응용통계학과 88학번
제천경찰서 정보과 경사

안정희 동문
응용통계학과 93학번
제천경찰서 청원감사관실 경사

응용통계학과 복학생과 신입생.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다. 예의 바르고 솔직하고 씩씩하기까지 한 예쁜 새내기를 일찌감치 점 찍어 놓았던 복학생 선배는 영자신문을 같이 공부하자 제안했고, 웃는 모습이 선해 왓지 믿을만해 보였던 그 선배를 새내기는 이미 마음에 두고 있었다. 태안 청년과 제천 아가씨. 그때 그 시절, 그와 그녀의 나이 스물하나, 스물여섯이었다.

“친한 친구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복학하고 처음 도서관 앞에서 보곤 뭔가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데려가지 않게 얼른 잡았죠. 고맙게도 나에게 시집와주고 남매까지 낳아 이렇게 잘살고 있으니 고마울 뿐입니다. 저희는 부부애와 동지애가 함께 존재해요.” - 남편 김은호

졸곧 제천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김은호, 안정희 동문은 자타공인 천생연분이다. 같은 학교 같은 과 선후배 사이도 모자라 같은 직업을 가지고, 같은 경찰서에서 오랜 시간 함께 일하고 있으니 이런 인연이 또 어디 있을까? 제천경찰서 249명 직원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커릴일 수밖에 없다. '불의를 보면 정말 참지 못했다'던 안정희 동문은 어린 시절부터 경찰관이 꿈이었다. 두 번째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면서 남자친구인 김은호 동문에게 같이 도전해보자고 권유했고, 당시 삼성생명에 근무하며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그는 고민 끝에 당찬 애인의 촉을 믿기로 했다. 결과는 대성공. 1999년 9월에 김은호 동문이, 10월에는 안정희 동문이 나란히 제천경찰서에 부임했고, 같은 해 12월 12일 결혼했다.

“제가 도시락 두 개씩 싸 들고 다니며 공부시켰어요. 대학 다닐 때에도 노트 정리한 거 다 보여주고 시험공부 챙기고 그랬던 거 같은데(웃음). 예전엔 서로 소속된 부서끼리 의견이 대립하면 은근히 신경 쓰였는데, 지금은 편안해요. 오히려 떨어져 있으면 불편할 것 같네요. 경찰학교 같이 다닐 때 제가 다쳐서 인대가 늘어난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주말마다 저를 업고 나와 병원에 데려다 줬거든요. 그때 참 고마웠어요. 저흰 아마 끈끈한 동지애가 더 클지도 모르겠네요.” - 아내 안정희

그동안 여성 업무와 수사관을 거쳐 현재 직원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정희 동문은 지난 2011년 자랑스런 경찰관 4개 부문 가운데 '엄정' 부문에 선정되어 충북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그런 부인의 경력을 자랑스럽게 들려주는 남편 김은호 동문도 같은 해에 '안보홍보유공' 부문에서 충북지방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부부가 나란히 2011년을 빛낸 셈이다. 경찰직이 성격에 맞다는 이들에게 공통분모가 있다. 바로 의협심과 베푸는 마음이다. 오랜 시간 탈북자와 외국인 문제를 담당해온 김은호 동문에게 지금도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다. 4년 전, 아르바이트가 끝난 후 자전거로 밤늦게 귀가하던 한 중국인 유학생이 다리 아래로 굴러 떨어져 크게 다쳤는데, 상당한 병원비를 유학생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딱한 사정을 전해 들은 김은호 동문은 병원비 마련과 치료를 위해 병원과 제천시, 의료보험공단 등을 두루 찾아 다녔고, 결국 말소된 유학생 보험을 되살려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다리 난간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시의 잘못도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김은호 동문이 백방으로 알아보고 집요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면, 유학생에게 1,700만원이라는 돈은 또 다른 아픔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일은 중국대사관에도 알려져 당시의 중국 특명대사가 경찰청장에게 감사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제 어머니께서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라고 늘 당부하셨어요. 죄지은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말라고. 중국 유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불의의 사고인데, 우리 경찰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아내에 비하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느라 반년을 애쓴 일이 있었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남편 김은호

“그게 벌써 10년 전 일이라... 열일곱 살 된 1급 장애인이었는데,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와서 잃어버린 부모를 찾아달라고 민원실에 사연을 넣었더라고요. 누구의 결혼사진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진 속에 쓰여 있는 신랑, 신부 이름을 실마리로 추적을 추적해 거듭했어요. 그렇게 전국에 있는 수백 명의 기록들을 훑고 훑혀서 결국 천안에서 부모님을 찾아냈죠. 정말 내 혈육을 찾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 아내 안정희

지금의 일이 천직이라 생각하며 온몸에 원칙과 신뢰가 배어나도록 살고 있고, 또 그렇게 계속 살고 싶다는 이들 부부에게 조금이라도 더 베풀어 주려는 마음은 그래서 당연한 덕목이 되었다. 안정희 동문이 '다모회'라는 여경 봉사단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지역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경찰관이 되고 싶어서다.

“제 아내는 어릴 적 꿈이 현모양처였다는데, 바쁜 와중에도 맘머느리 역할까지 잘해주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야무지게 일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집 안팎으로 몸이 고단해도 주변 사람 살피는 일에 게으른 법이 없어요. 그런 점이 저에게 늘 자극이 되고 귀감이 됩니다. 좋은 동료이자 인생의 동행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 남편 김은호

“늘 큰오빠처럼 든든히 곁에 있어 주어 고맙다며 지금까지만 살면 좋겠다는 안정희 동문 역시 예의 그 당당한 목소리 뒤로 스무 살 시절의 수줍은 미소를 남긴다. 세상을 살면서 내 생각과 일을 깊이 이해해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이가 곁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인생은 참으로 값진 것이다.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말이다. 의협심으로 뚝뚝 뚫힌 이 부부가 경찰로 뛰는 한 제천시는 한층 더 살맛 나고 안전한 도시가 될 것 같다. ④

사제동행(師弟同行),
그때 그 시절 은사와의 만남

아름다운 멜로디, 목소리를 만나

세상을 물들이는 음악이 되다

지난 5월 20일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한윤옥 동문의 독창회. 스승 이래근 교수의 '사과꽃'이 애잔하고도 고운 소프라노 음색으로 객석을 휘감았다. 제자는 20년을 되돌아가 다시 학생이 된 마음으로 스승의 곡을 노래했고, 스승은 제자의 노래에 큰 감동과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음악으로 소통하는 스승과 제자는 이렇게 음악으로 교감하며 세상을 행복하게 물들이고 있다.

제자 **한윤옥 동문**
음악교육과 95학번, 성악가

스승 **이래근 교수**
음악교육과 교수, 사범대학장

이래근 어서 오시게. 이렇게 얼굴을 보니, 지난번 한 선생 독창회 때가 다시 생각나는군. 정말 대단했어. 깜짝 놀랄 정도의 아름다운 목소리였거든. 이제, 청주 지역을 벗어나 한 선생 목소리를 더 널리 들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네.
한윤옥 과찬이세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날 교수님 곡을 부를 수 있어서 얼마나 영광이었던지 몰라요. 지인들 중에 '사과꽃'이란 곡이 가장 좋았다고 말씀해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 곡 좋아하거든요.
이래근 한 선생이 잘 불러주어서 그런 게지. 오히려 내가 더 고맙네. 그것도 피아노 반주가 아니라 오케스트라 반주로 웅장하게 말이야. 곡을 잘 썼더라도 부르는 이가 잘 불러줘야 곡이 비로소 완성되거든. 그날 무대에서 12곡을 모두 완벽하게 외워서 부른 것도 대단해. 쉽지 않은 일이지 않나. 무대에서 내 소개까지 해주는 여유도 놀라웠네.

한윤옥 공연 내내 교수님 표정 살피면서 노래했어요. 잘 듣고 계시는지,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걱정이 되어서요. 행복하셨다고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곡을 작업하실 때 숨은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곡에 묻어나는 그리움을 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래근 노랫말을 받아 작곡할 무렵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또 그때가 마침 사과꽃이 피기 시작할 때였거든. 그런 이유로 내게도 각별한 곡이 되어버렸는데, 한 선생이 그렇게 잘 불러주어서 감동이 더했네. 그나저나 한 선생은 곡을 해석할 때 어떤가. 나는 곡을 쓸 때 가사의 의미와 의도를 계속 고민하면서 조금씩 멜로디를 짜고, 살을 붙이는데, 한 선생도 자신만의 노래 부르는 방법이 있을 것 같군.
한윤옥 네. 저도 노랫말이 온전히 이해될 때까지 계속 읽어요. 노래를 부르기 전에 깊이 이해하고 저만의 해석을 해야 하니까요. 제가 이해하는 깊이에 따라 관객이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래근 그건 본인의 곡 해석력이 좋은 거지. 한 선생은 학생 때부터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뛰어났었어.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마치고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해. 남다른 열정이 있었으니까. 시미오나토 콩쿨에서 1위를 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우리 과 사람들 모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한윤옥 모두 응원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제가 귀국하고 얼마 안 되어 무대에 섰을 때, 객석에서 얼핏 교수님을 보았는데 공연이 끝날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셔서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고 가셨던 거 기억나세요? 정말 잘 들었노라고. 제자로서 또 동문으로서 반갑고 고맙게 생각한다 말씀해주셨어요. 그때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학생 때 교수님께서 작곡하신 곡을 받아서 친구들과 같이 부르곤 했잖아요. 정기연주회 때 '기도'라는 곡을 부르면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부분이 나오면 친구들 손을 꼭 쥐면서 정말 좋아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교수님 곡은 순수음악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마음에 스며드는 곡이 많은 것 같아요. 학생 때는 감히 제가 부르겠다고 말씀 드리기 어려웠는데, 이제 무대에서 자주 부르고 싶습니다.



이래근 그렇게 말해주니 더 좋은 곡을 많이 써야겠군. 부지런히. 한 선생처럼 훌륭한 제자가 나오는 일만큼 더 행복한 일이 없어. 예전에는 음악교육과라고 해도 자신의 전공에 더 열의를 갖고 노력했던 제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전공에 대한 깊이가 조금 얕어진 것이 사실이야. 물론 교직을 이수해서 교사의 길을 걷는 친구들의 몫도 중요하지. 어느 길을 걷든 음악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세상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가꿔간다면 좋겠네.

한윤옥 교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으세요. 신세대 교수님이셨잖아요. 학생들과 소통을 잘하셨는데, 지금도 변함없는 것 같으세요. 학교 선배님이기도 해서 저희에게 더 각별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작곡법 수업 때, 곡마다 재미있는 설명을 곁들여주셨던 게 기억에 남아요. 클래식을 대중문화와 절묘하게 호흡시켜 고루하지 않게 가르치셨거든요. 저도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그때 교수님의 새로운 생각들이 큰 힌트가 됩니다.

이래근 KBS 라디오 <정다운 가곡>이란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평생교육원에서 색소폰을 가르칠 때마다 느끼는 것도 그걸세. 순수음악을 하는 사람의 몫. 어떻게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서야 하는지 늘 고민하게 되지. 한 선생은 이제 그 좋은 목소리로 더 많은 사람에게 노래를 들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도 집중해야 하니 마음이 조금 조급해졌을 만한데, 어떤가?

한윤옥 공부가 끝난 게 아니었어요(웃음).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이, 또 다른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무대에 서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더 많이 노력하고 준비해야겠다고 매일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래근 예술은 무대에 올려지는 순간 평가받지 않나.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준비과정은 길고 어렵지. 가르치는 것도 똑같아. 학생 한 명 한 명과 함께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그 학생들이 사회로 발을 내딛는 순간이 한 선생에게는 또 다른 무대가 되는 셈이지.

한윤옥 네. 교수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저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전히, 늘 신세대 교수님으로 남아주세요. 학생들과 멋지게 소통하시면서 그들이 필요한 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도 곁에서 힘껏 돕겠습니다. ㉠



멈추지 않는 도전, 오늘과 내일을 잇는 대학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을 넘어 세계 속의 글로벌 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주대학교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과 연구,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청주대학교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ISSUE & NEWS

38 · Focus On	42 · News Brief	44 · People News	46 · Special Lecture
제19기 통일교육위원 충북협의회 출범식 개최 외	청주대, 세월호 성금 2,450여 만원 기탁 외	김종태 교수, 충청북도 기능경기위원회 표창장 수여 외	정성희 한국여기자협회장 명사초청 특별강좌 외



Focus. 1

제19기 통일교육위원 충북협의회 출범식 개최

우리대학 김윤배 총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제19기 통일교육위원 충북협의회 출범식이 지난 6월 24일 50여 명의 통일교육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우리대학 새천년종합정보관 409호 강 의실에서 열렸다.

출범식은 김윤배 총장의 인사말과 통일교육원 윤미량 원장의 축사, 위촉장 전달식 순으로 이 루졌으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고영환 실장의 '북한의 최근 실상과 권력구도'에 대한 강연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우리대학 정치외교학과 김영재 교수와 청원교육지원청 김 수연 교육장, 신우인 전 청주교육장 등이 부회장으로, 김교형 변호사 등이 감사로 각각 선임 됐다. 이 자리에서 김윤배 통일교육위원 충북협의회장은 "미래 통일 시대의 주역인 젊은이들 이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하게 된 다"며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포맷의 통일교육을 활성화시켜 지역 사회에 통일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일교육위원 충북협의회는 지역사회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결성된 통일부 통일교 육원 주도의 전국 16개 시도별 지역협의회 가운데 하나로, 통일부는 최근 중앙협의회를 거쳐 전국 지역협의회 회장단을 선임하고 위원들을 위촉했다.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Focus. 2

청주대,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우리대학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93명 학생들의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지난 5월 8일 청 암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선서를 하는 학생 외에도 간호학과 재학생들과 학부모, 대학 및 병원 관계자 등 모두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선서식은 국민의례, 촛불의식, 나이팅게일 선서, 격려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예비간호사로 첫걸음을 내딛는 학생들이 현대 간호학의 창시자이자 의 료제도의 개혁가로 널리 알려진 영국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본받아 간호 전문직에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행사로,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이 본격적인 병 원 임상실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호사로서의 사명의식과 윤리의식을 갖추게 하는 데 그 목 적이다. 청주대학교 간호학과는 2013년 첫 졸업생을 배출했고,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 졸업생 전원이 국가고시에 합격한 바 있으며, 이들은 서울·경기·충북 지역의 유명 병원과 대 학병원 등에 취업이 확정됐다. 2009년 40명의 정원으로 간호학과를 신설한 우리대학은 2010년 65명, 2011년 95명, 2012년 100명으로 꾸준히 학과 정원을 증원해왔다.



Focus. 3

청주대, 역량기반 지원 취업캠프 개최

우리대학은 지난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총 20여 일에 걸쳐 4학년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역량기반 지원 취업캠프'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 열린 이번 캠프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약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 29개 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자신에 맞는 직무를 탐색, 직무 역량에 맞는 직업을 찾고, 이에 적합한 개인별 맞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모의 면접을 실시하는 등 전문가와 함께 개개인의 취업역량을 키우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김윤배 총장은 이번 역량기반 지원 취업캠프 개최와 관련해 "졸업 예정인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역량에 맞춰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대학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청주대학교의 교육이념인 실학성세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취업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대학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취업지원부서 강화, 취업주간행사 개최 등 학생들의 취업을 향상을 위해 전방위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진주 인재개발원장은 "역량기반 지원 취업캠프는 학생들이 단순 생계수단인 '직장' 준비가 아닌 개인의 삶과 가치를 알차게 채워가는 '직업'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직무역량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Focus. 4

청주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3년 연속 그랜드슬램

우리대학이 올해에도 세계 3대 디자인공모전에서 연이어 수상하며 3년 연속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산업디자인학과는 올해 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 IF(International Forum Design Honnover) 디자인 어워드에서 금상 및 본상을 수상한데 이어 최근 레드닷(Reddot)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둔 것이다.

이보다 앞서 열린 2014년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산업디자인학과 4학년 김지혜 학생이 세면대와 음수대, 세탁기를 하나로 합친 '3 in 1 Washer'라는 작품으로 본상인 'Winner'를 수상했으며, 이어 4학년 윤태식 학생이 사용할 때 'L'자 형태로 접을 수 있도록 고안된 'L-Burner'로 IDEA 디자인 어워드 2014에서 또 한번 금상(GOLD)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 대회에 참가한 우리대학 임재강, 홍혁기, 윤태식 학생도 나란히 본상(Finalist)에 오르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에 최근 독일에서 열린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14에서 4학년 김지섭, 홍혁기 학생의 작품 2점이 본상(Winner)을 수상하며 7년 연속 레드닷 수상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김지섭 학생의 수상작인 '초음파 HMD(Head Mounted Display)'는 머리에 쓰는 가상현실 기기로, 임신한 여성이 초음파 측정기를 활용해 태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디자인이다. 홍혁기 학생의 'Lotus Glass house'는 4계절 난방과 환기, 제설이 모두 용이하도록 설계된 농가의 비닐하우스 디자인으로, IDEA 디자인 어워드 2014에서도 본상을 수상하며 그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은 바 있다.



청주대, 세월호 성금 2,450여 만원 기탁

지난 6월 25일, 우리대학은 세월호 여객선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해 총장 및 교직원 404명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한 2,450여 만원의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 성금은 세월호 유가족 지원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윤배 총장은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희생자를 애도하고 실의에 빠진 유가족들을 위로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축학과 학생들, 괴산군서 농가주택 개선 봉사활동



우리대학 건축학과 학생 40여 명이 충북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농가주택 개선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번 봉사는 마을한국농촌농촌건축학회 대학생농어촌봉사단의 '2013 농어촌 집 고쳐주기' 행사의 일환으로 전개됐다. 학생들은 7월 1일 부흥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발대식을 시작으로, 7월 14일까지 총 2주에 걸쳐 부흥리 지역 6개 마을 11가구를 대상으로 한 슬레이트 지붕 교체, 수

세식 화장실 설치, 노후된 외벽 및 내벽 수리작업 등을 진행했다. 한편,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은 매년 전국에서 100가구 정도를 선정해 독거노인, 장애인 주택의 지붕개량, 외벽, 화장실 등을 보수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건축공학과, 한국건축시공학회 학술대회 논문상 수상

건축공학과 한민철 교수가 지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2014 한국건축시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한민철 교수는 '카본아미노 실리카블랙 고성능 감수제(CASB-SP)를 사용한 블랙 콘크리트의 Mock-up test 및 현장적용'이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천구, 한민철, 남유진 교수가 지도한 건축공학과 대학원생들이 학술발표대회에서 대거 수상하는 등 총 8편의 논문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어 우리대학의 연구역량을 드높였다.

청주대 총학생회-청주미평여자학교와 협약 체결



우리대학 총학생회와 청주미평여자학교(청주소년원)가 지난 4월 29일 청주미평여자학교에서 교육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대학 총학생회와 청주미평여자학교는 대학생

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전한 인재육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상호 간의 교류를 시작하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활동 지원과 교육환경 정화 사업 등에서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기념하여 지난 5월 13일부터 4주간 매주 화요일 3시부터 2시간 동안 우리대학 패션디자인학과 학생들은 미평여자학교 학생들에게 재봉기술을, 영화학과는 영화 제작을, 만화애니메이션학과는 캐릭터 그리기를 지도했으며, 앞으로도 재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우리대학 회화학과 학생들이 지난 14일부터 미평여자학교의 주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작업해 온 벽화가 함께 공개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반도체공학과,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우수논문 발표상 수상



우리대학 반도체공학과 이상렬 교수 연구팀 소속의 한상민 학생이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고성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14년도 하계학술대회에서 학부생 우수논문 발표상을 수상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38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참가인원 역시 700명을 기록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또한 각 대학 학부 학생들이 내놓은 논문 50여 편을 공유하고, 젊은 인재들의 참신한 연구결과를 함께 논의하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기도 했다.

청주대 펜싱팀, 전국선수권대회 개인전 우승·단체전 준우승



우리대학 펜싱팀이 제 52회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조다윗 선수의 개인전 우승과 함께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6월 16부터 24일까지 경북 김천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남자대학부

에페 개인전에서 조다윗 선수는 결승에서 한국체대 정병찬 선수를 누르고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우리대학은 에페 단체전에서도 이재빈, 마세건, 박동현, 조다윗 선수가 고른 기량을 발휘하며 준결승에서 라이벌 국제대를 45대 43으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으나 한국체대에 41대 45로 아쉽게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청주대-충북보건환경연구원, MOU 체결

지난 5월 26일, 우리대학을 비롯한 도내 7개 대학교가 충북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보건환경 시험분석 전문가 양성교육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7개 대학은 우리대학을 비롯해 충북대, 한국교통대, 서원대, 중원대, 충청대, 충북도립대 등이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각 대학에서 선발된 보건·환경 관련 학과 학생들은 방학기간을 활용해 연구원의 전문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측은 인재 육성과 대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주얼아트학과-한국공예관 업무교류협약 체결



우리대학 비주얼아트학과와 한국공예관은 지난 5월 30일, 한국공예관 4층 다목적실에서 업무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청주 지역의 순수미술학과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

은 순수미술학도들의 취업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공관련 진로 탐방 기획을 통해 현장이 요구하는 문화예술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두었다. 앞으로 비주얼아트학과와 청주시한국공예관은 지속적인 문화예술지원 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통합청주시 문화예술산업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전공 관련 취업을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청주대, 실버행복드림 발대식 개최



우리대학과 청주시, 청주시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참여하는 실버행복드림 발대식이 지난 5월 2일 한범덕 전 청주시장과 우리대학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

사는 고독사 관련 동영상 시청, 실버행복드림 직무교육,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 사업 경과보고,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실버행복드림은 자원봉사자와 홀몸노인이 1대 1 결연을 맺고, 노인 자살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각 대학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학생들이 홀몸노인의 안전 확인과 정서적 지지, 행복나눔 동행 문화 프로그램 등을 함께 전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천구 교수 연구팀, 초고강도 콘크리트 균열방지공법 개발



우리대학 건축공학과 한천구 교수 연구팀이 한국건축시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균열을 방지하는 공법을 발표했다. 우리대학과 ㈜선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이 함께 개발하고, 박사과정 조만기 씨가 이에 대한 논문 「유화처리 정제식용유(ERCO) 사용에 따른 고성능 콘크리트의 Mock-up 및 자기수축특성」을 발표했다. 논문은 저렴한 폐식용유를 이용한 수축저감제를 개발해 시멘트 내부에 발생

하는 빈 공간을 채워 수축을 방지하고 균열을 막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기술은 ㈜동남기업이 자기수축저감제의 상용화에 성공하여, 초고층 건축물 및 대형 구조물 현장에 보급되고 있다.

Faculty News

교수소식

김종태 교수

충청북도기능경기위원회 표창장 수여



공예디자인학과 김종태 교수가 지난 4월 14일 충청북도기능경기위원회의 위원장인 이시종 충북도지사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이번 표창은 충청북도 숙련기술인들의 축제인 2014년 충청북도기능경기대회 집행위원으로 성실히 활동해온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아울러 국가산업발전과 숙련기술인 지위향상에 공헌한 이에게 수여한 것이다.

황혜원 교수

청주복지재단 제2대 이사회 구성원 선임



사회복지학과 황혜원 교수가 재단법인 청주복지재단의 제2대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됐다. 청주복지재단은 지난 5월 20일 이사회를 열어 남기민 이사장을 제2대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총 12명의 이사진을 선임했다. 또한, 청주복지재단은 올해 4대 추진과제로 통합청주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기반 마련,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 협력적 복지 네트워크 구축, 조사연구와 복지정책 개발 등을 선정했다.

조민기 교수

국제현대무용제 '모다페' 홍보대사 위촉



연극학과 조민기 교수가 사단법인 한국현대무용협회가 주최하는 국제현대무용제 '모다페'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모다페 측은 신체의 움직임으로 인간의 삶과 감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현대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민기 교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2014년 모다페의 주제는 '본능을 깨우는 춤'이었다.

박호표 교수

증평군 지역균형발전정책자문단 활동



관광경영학과 박호표 교수가 지난 4월 23일,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충북발전연구원이 주관한 증평군 지역균형발전정책 시·군 순회 컨설팅에 참석해 정책자문 활동을 벌였다.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컨설팅 자리에서 박호표 교수는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 후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해 조언했다.

김영환 교수

천안시 제2기 도시재생대학 학장 선임



도시계획학과 김영환 교수가 충남 천안시의 제2기 도시재생대학 학장으로 선임됐다. 지역 상인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민·관·산·학 거버넌스 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 제2기 도시재생대학은 천안시의 원도심 쇠퇴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해결방안을 지역주민의 힘으로 함께 고민해서 찾아내고 개선하는 과정을 학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한편, 제2기 도시재생대학은 지난 5월 10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8주간 8단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7월 5일 수료식을 가졌다.

최정미 교수

청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위촉



회계학과 최정미 교수가 청주시의회 201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위원으로 위촉됐다. 지난 5월 14일 위촉된 5명의 세입세출 결산위원들은 6월 2일까지 20일 동안 시의회 등에 마련된 결산심사장을 돌며 청주시 본청과 산하기관의 2013 회계년도 집행예산의 효율성과 운영에 대한 적법성, 적정성을 검사하는 활동을 벌였다.

김경식 교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주관 건설안전교육 진행



토목공학과 김경식 교수가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지난 4월 20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건설안전교육에서 건설용 강재 품질관리 계획에 대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충청 지역 건설공사 현장의 대리인, 감리자, 안전관리자 및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은석 교수

신소재 개발물질 '발룬펠릿' 시제품 시연회 개최



응용화학학과 이은석 교수가 지난 1월 발표한 대체에너지 신소재 개발물질 '발룬펠릿'에 대한 시제품 시연회를 열었다. 지난 5월 12일 경기도 이천시 국보에너지(주)에서 열린 이번 시연회에서 이은석 교수는 발룬펠릿과 다른 제품과의 성능 및 경제성에 대한 비교 테스트를 진행했다. 발룬펠릿은 간접 열을 가해 발열을 일으키는 신소재 에너지물질로, 에너지 손실이 적어 최대 5~6배의 효율을 낼 수 있다.

Alumni News

동문소식

이원준 동문

롯데백화점 신임 대표이사 취임



이원준(행정학과, 77년 졸업) 동문이 지난 6월 10일 열린 롯데쇼핑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됐다. 지난 4월 23일부터 실질적인 대표이사직을 수행해온 그는 정도경영, 현장경영을 강조하며 해외 및 지역점포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직원, 고객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다. 1981년 롯데쇼핑에 입사한 이원준 대표는 본점장, 상품본부장, 영업본부장,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등을 두루 거쳤다.

유제현 동문

제33대 재독한인총연합회 회장 취임



유제현(무역학과, 84년 졸업) 동문이 지난 5월 24일 열린 제33대 재독한인총연합회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취임했다. 유제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자랑스러운 재독한인사회 건설과 파독 1세대를 위한 재독한인종합회관 건립 등을 약속했다. 인천 강화 출신인 유제현 회장은 1984년 독일로 유학와 만하임대에서 수학했고, 현재 프랑크푸르트에서 광고회사 '애드비전'과 무역회사 '온비즈'를 운영하고 있다.

자오웨이핑 동문

중국 절강성 월수대학교 교수 임용

자오웨이핑(무역학과, 2014년 졸업) 동문이 중국 동남부에 위치한 절강성의 월수대학교 교수에 임용됐다. 자오웨이핑 동문은 우리대학 무역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후, 고국인 중국으로 돌아가 교수로 재직하게 됐다. 월수대학교는 1981년 설립된 대학으로, 현재 12,0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신강탁 동문

한국교원대 사무국장 임명



신강탁(법학과, 78년 졸업) 동문이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에 임명됐다. 1973년 음성교육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신강탁 국장은 그동안 감사관실, 충북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교과서기획팀장, 재외동포교육과장 등을 거쳐 한국교통대학교 사무국장으로 근무해왔다. 그는 "한국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원대에서 교육의 발전과 우수교원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류한정 동문

제27대 안동청년유도회 회장 취임



류한정(생물학과, 89년 졸업) 동문이 제27대 안동청년유도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식에서 류한정 회장은 "7월 초 안동에서 열리는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은 인문학적 가치와 실천철학을 대중화시키기 위한 시도"라며, "안동청년유도회는 이 기간 보다 발전된 세계청년유도대회를 통해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류한정 회장은 1999년부터 안동청년유도회 사무국장과 부회장, 경북청년유도회 사무국장, 청년유도회중앙회 중앙위원 등을 역임하며 유교철학 계승에 앞장서왔다.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동문 당선자 명단

시장, 군수 당선자
홍성열 대학원 졸업 / 증평군수 / 새정치연합
류한우 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 단양군수 / 새누리당

도의회 의원 당선자
김양희 대학원 졸업 / 청주시 제2선거구 / 새누리당
장선배 대학원 졸업 / 청주시 제3선거구 / 새정치연합
연철홍 지역개발학과 졸업 / 청주시 제9선거구 / 새정치연합

이의영 경영학과 졸업 / 청주시 제11선거구 / 새정치연합

이광진 신문방송학과 졸업 / 음성군 제2선거구 / 새정치연합

박종규 사회교육과 졸업 / 청주시 제1선거구 / 새누리당
박우양 경제학과 졸업 / 영동군 제2선거구 / 새누리당
박봉순 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 청주시 제8선거구 / 새누리당

이양섭 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 진천군 제2선거구 / 새누리당

시·군의회 의원 당선자
최충진 대학원 졸업 / 청주시 다선거구 / 새정치연합
육미선 국문학과 졸업 / 청주시 마선거구 / 새정치연합
김상봉 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 진천군 가선거구 / 통합진보당

김성택 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 청주시 나선거구 / 새정치연합

이완복 무역학과 졸업 / 청주시 라선거구 / 새누리당
김병국 대학원 졸업 / 청주시 차선거구 / 새누리당
하유정 대학원 졸업 / 보은군 가선거구 / 새정치연합
정태훈 법학과(야) 졸업 / 청주시 가선거구 / 새누리당
김태수 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 청주시 다선거구 / 새누리당

홍순평 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 청주시 라선거구 / 새누리당

이병복 법학과 졸업 / 청주시 바선거구 / 새누리당
김용규 경제학과 졸업 / 청주시 바선거구 / 새정치연합
안홍수 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 청주시 사선거구 / 새누리당

문병관 대학원 졸업 / 옥천군 가선거구 / 무소속
우성수 대학원 졸업 / 음성군 가선거구 / 새누리당
장동현 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 진천군 나선거구 / 새누리당

도의원 비례대표 당선자
윤은희 행정학과(야) 졸업 / 충청북도 / 새누리당
이종욱 대학원 졸업 / 충청북도 / 새누리당
이숙애 대학원 졸업 / 충청북도 / 새정치연합

군의원 비례대표 당선자
박경숙 지리교육과 졸업 / 보은군 / 새누리당
윤인자 대학원 여성지도자과정 / 청원군 / 새누리당

명사초청 특별강좌

2014년 4월~5월

4 April

여기자 30년 변화와 과제

4월 16일

정성희 한국여기자협회장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이자 동아일보 논설위원 정성희 회장이 지난 4월 16일 우리대학 청암홀에서 열린 명사초청 특별강좌의 강연자로 나섰다. 정성희 회장은 "88올림픽 이후 가치 구조가 변화되면서 여성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났다"며

"과거에 관심이 적었던 보육, 성희롱 등의 사안들을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는 등 기자의 영역에서 여성적인 가치가 돋보인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성희 회장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을 졸업했다. 1985년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한 이후 1999년 편집국 생활부, 사회부 등을 거쳐 2006년부터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좋은 습관이 운명을 개척한다(良習創運)

4월 30일

윤종기 충북지방경찰청장



지난 4월 30일, 우리대학 청암홀에서는 윤종기 충북지방경찰청장이 '양습창운(良習創運)'이라는 사자성어를 제시하며 명사초청 특별강좌를 열었다. 윤종기 청장은 "좋은 습관은 긍정에너지를 가진 좋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 좋은 습관을 반복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좋은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종기 청장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정책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3년 경위로 임관한 이후 경찰특공대장,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장, 충북경찰청 차장(경무관), 서울경찰청 차장(치안감) 등을 거쳐 2013년 제28대 충북지방경찰청장으로 취임했다.

은 습관은 긍정에너지를 가진 좋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 좋은 습관을 반복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좋은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종기 청장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정책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3년 경위로 임관한 이후 경찰특공대장,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장, 충북경찰청 차장(경무관), 서울경찰청 차장(치안감) 등을 거쳐 2013년 제28대 충북지방경찰청장으로 취임했다.

5 May

신수도권 시대를 함께하는 미래인재

5월 7일

정정순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정정순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5월 7일, 명사초청 특별강좌의 강연자로 나섰다. 이번 특강에서 정정순 부지사는 "기회는 늘 절박한 순간에 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복의 조건을 '직업, 사랑하는 사람, 희망' 세 가지로 꼽으며 "자신의 생각이 꿈꾸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어야

만 결국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한 뒤 학생들에게 "항상 꿈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부지사는 청주고등학교와 우리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충청북도청 경제통상국장, 청주시청 부시장,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 실 정책관 등이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충청북도 제34대 행정부지사를 맡고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방향

5월 14일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난 5월 14일, 우리대학 청암홀에서 열린 명사초청 특별강좌에서는 정승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학생들을 만났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잘 들여다보고 20년, 30년 후를 위해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한

정승 처장은 5월 14일 '식품안전의 날'을 강조하면서 "사람을 존중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먹거리로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는 절대 저지를 수 없을 것이다. 나 자신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승 처장은 전남 원도 출신으로 전남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행정학 석사, 강원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1979년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병무청 사무관, 농림부 사무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등을 거쳐 2013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맡고 있다.

물과 나의 인생

5월 21일

한경전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한경전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이 지난 5월 21일 명사초청 특별강좌의 강연자로 나섰다. '물과 나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특강에서 한경전 부사장은 "앞

으로 물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원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복은 조직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다"며 "어떤 일을 맡든지 나 자신이 일의 중심이 되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통의 리더', '통섭형 리더'를 바람직한 인재상으로 꼽으며 "복잡해지는 사회구조에 발맞춰 융합형 인재가 중요시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익혀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경전 부사장은 연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아주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한 이후 하수도사업팀장, 기술관리실장, 수도사업본부장 등을 거쳐 2013년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상황주도력을 기르자

5월 28일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 5월 28일 우리대학 청암홀에서 열린 명사초청 특별강좌의 강연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곽병선 이사장은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재단의 지원을 받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5년, 10년 후 대한민국을 이끄는 주역이 되길 기대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의 '미래에 희망이 있는 사회는 제3의 영역에서 뛰는 사람이 많은 사회'라는 표현을 인용한 뒤 "공익과 타인을 위한 배려, 관심에 목표와 가치를 두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곽병선 이사장은 서울대에서 교육학 학사와 석사를 취득했고, 미국 마케팅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2000년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 2009년 한국교육학회장을 역임했고, 2013년부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청주대학교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나눔에 동참해 주십시오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 세계 수준의 글로벌 명문대학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청주대학교의 발전기금 조성사업은 기부자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조금씩 구체적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청주대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꿈꾸고, 희망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대학은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기금 조성사업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통해 청주대학교가 지역사회의 꿈을 아우르는 진정한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청주대학교의 내일을 위한 기부 및 후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 종류

대학발전기금_교육환경개선기금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기부하는 기금으로, 주로 대학에서 해당 기간에 주력하는 사업이나 교육인프라 구축에 쓰인다.

대학의 특성화 사업 지원

- 선택과 집중, 강한 학부를 위한 선진적 전공 시스템 도입
- 다양한 분야의 초일류 연구소 육성 지원

글로벌 캠퍼스 교육환경 구축 사업

- 캠퍼스 국제화 사업
- 교육설비, 기자재 등 확충 지원
- 장애학생 복지시설 확충

국제교류 및 국제화 지원 사업

- 교류협정을 체결한 해외 대학과의 학생 및 학술 교류
- 해외 자매대학과의 교류 확대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

- 충북권역 이러닝 지원센터 지원
- 디지털 강의실 확충

장학기금

재학생들을 지원하여 우수한 인재로 키우기 위한 장학기금으로, 기부자가 대학(원)이나 학부(전공) 및 학과 등 장학금의 용도를 정하면, 그 목적에 맞도록 해당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

대학발전기금_연구기금

세계적 연구성과를 이끌기 위해 교수들의 학문적 연구를 지원하며, 연구기금은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우수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대학발전기금_국제화기금

전 세계 90여 개 자매대학과의 학생교류, 학술교류 등을 지원하며 세계적인 석학이나 경영자들을 초빙하여 학생들을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기금이다.

- 글로벌리더 육성 기금
- 자국 유학생 장학기금
- 국제 한국학연구기금
- 세계석학 초청 강연기금
- 세계경영자 초청 강연기금 등

대학발전기금_문화예술기금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예술 강국,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연 및 연극, 영화, 회화, 한국음악, 한국무용, 디자인 등 다양한 관련 전공과 학부의 교육, 연구기금으로 쓰이는 기금이다.

- 공연예술지원기금
- 연극/영화지원기금
- 한국음악/한국무용 발전기금
- 디자인(산업/시각/공예/패션) 발전기금
- 회화/만화 발전기금

기부 방법

기부 참여 안내

약정서 작성

은행이나 우체국을 이용할 경우 작성된 기탁서를 FAX 또는 우편으로 대외협력팀에 전달하고, 해당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이체)한다.

온라인 무통장 입금

발전기금 입금계좌로 입금 후 입금내역을 대외협력팀에 전달한다.

직접 방문

청주대학교 대외협력팀 방문 후 직접 발전기금 금액 및 용도를 약정한다.

급여 이체

청주대 교직원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100,000원 단위 이하로 기탁할 수 있다.

※ 유가증권 또는 현물 등 자산을 기탁할 경우에는 직접 방문 또는 대외협력팀으로 연락하여 학교 담당자가 기부자를 방문함

담당부서 연락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우편번호 : 363-764)
청주대학교 대외협력실 대외협력팀
Tel : (043)229-8011, 8012
Fax : (043)229-8015
e-mail : obwn@cju.ac.kr



인재의 꿈을 읽다!

미래를 연다 세계로 간다

당신의 열정은 미래보다 커다랗기에
당신의 가능성은 세계보다 넓기에
당신의 내일과 청주의 오늘이 만나
가장 뜨거운 변화와 혁신을 시작합니다.
'신수도권 명문대학' 청주대학교에서
미래로, 세계로 마음껏
당신의 꿈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인재의 꿈을 읽다 - 청주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4. 9. 6(토) 09:00 ~ 9. 18(목) 21:00
- 실기고사 : 2014. 10. 1(수) ~ 10. 5(일)
- 합격자 발표 : 2014. 11. 4(화) 14:00
(단, 일반전형1, 창의인재전형(보건의료대학, 항공운항학과), 지역인재전형은 2014. 12. 5(금) 14:00)
- 문의 : 청주대학교 입학관리팀 (043)229-8033, 8034
<http://www.cju.ac.kr/web/ipsi>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학생중심대학

- 장학금 360여억 원 지급(2013년)
- 외국인 교수비율 전국 11위(2014 조선일보-QS 대학평가)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세계 29개국 150여 대학과 자매결연)
- 최신 아파트형 기숙사(2,300여 명) / 신입생 전원 수용 가능
-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공/진로/대학생활/취업까지 책임지는 책임지도교수제 운영
-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 선정(2012~2015)